

상생공영의 남북정책을 위한 한국-베트남 정책협의회 참석

-이석기 연구위원(국제산업협력실)

I. 출장 개요

□ 출장자: 이석기 연구위원

□ 출장 기간: 2008년 10월 13일 - 10월 17일

일시	일정	위치 및 기타
13일	인천 출발 하노이 도착	
14일	제1일차 한-베트남 정책 협의회	베트남 사회과학원
15일	제2일차 한-베트남 정책협의회	베트남 사회과학원
16일 오전	현지 진출공장 방문	방림방적
16일-17일	하노이 출발, 인천도착	

□ 출장 지역: 베트남 하노이

□ 출장 목적: 베트남 도이모이 정책의 내용 및 성과에 대한 한-베트남 학자 및 정책당국자 간의 토론을 통하여 대북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함.

II. 정책협의회 내용 및 평가

□ 주요 토론 내용

○ 베트남 측이 발표를 하고, 한국 참석자의 질문과 베트남 측 참석자의 답변 및 토론으로 정책협의회가 진행되었음.

- 베트남 측은 도이모이 정책의 도입 배경, 그 경과, 분야별 상세 내용, 성과,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발표

- 한국 측은 도이모이 정책의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친 그룹, 사회주의 이념과 시장경제간의 충돌 가능성, 시장경제 도입에 따른 새로운 문제의 발생 여부와 그 해결책, 북한-베트남간 정치, 경제 관계와 북한의 도이모이 정책에 대한 관심, 도이모이 노선의 북한에서의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하였음.

- 한국 측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베트남 측에 설명

○ 베트남 측의 주요 발표 내용

- “대외정책의 개혁과 세계경제로의 적극적인 통합”

- “사회주의 지향적 시장경제노선에 의한 베트남 경제의 개혁”

- “베트남 개혁의 평가와 교훈”

- “베트남이 경제관리 개혁과 교훈”
- 베트남의 FDI 및 조세정책“
- “베트남의 무역개혁 평가와 교훈“
- “베트남과 북한간의 관계”
- “베트남과 미국간의 관계 평가”

□ 평가

- 베트남 측은 도이모이의 창시자, 통일 이후 남베트남 경제의 사회주의 경제로의 전환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는 등 완전히 통제되지는 않고 다소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음.
- 이는 베트남의 공산당 지배체제가 북한과는 달리 절대주의적이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.
- 베트남의 사회주의 개념에 대한 한국 측의 질문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베트남 측 참석자들이 ‘사회주의 개념의 정립’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, 베트남 ‘사회주의는 과도기적 단계’이며, 이 단계에서는 ‘부유한 국민, 부강한 국가, 평등한 사회’ 정도가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고 답변
- 사회주의 개념에 대한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는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서 내부 갈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.
- 국유기업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기업을 도입하는 것이 사회주의에

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

-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유연한 정치체제와 이념체계가 베트남 도이모이 정책이 짧은 기간에 성공하게 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였음.
- 베트남 측 참석자들은 도이모이 정책 성공의 요인의 하나로 최고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, 북한의 경우에도 개혁개방을 추진하려면 최고 지도자나 최고 지도자의 측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음.
- 관료나 정치가가 아닌 국민의 저항이 가장 적은 방식으로 개혁을 한 것이 혼란이 없이 도이모이가 추진될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음. 즉,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농업개혁부터 시작한 점이나 가장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국유기업의 개혁을 뒤로 미룬 것 등이 도이모이가 내부의 대립이나 혼란을 덜 가져오면서 추진될 수 있게 하였고, 이것이 성공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라는 것임.
- 북한의 경우에도 사유화 등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농업부문이나 기업의 자율성 확대, 대외무역의 자유화와 활성화 등의 정책부터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. ☞